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01호 현대불교
2010년 9월 15일(음 8월 8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자기 선장의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이 귀결되어야

오늘 대덕 큰스님들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귀빈 여러분, 교수님들, 그리고 파라마타 젊은 법우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말만 잘한다고 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바로 각자 자기의 '자신(自神)'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근원에 모든 것이 다 직결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우리 각자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서 먼저 너부터 알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직결이 돼 있으니 우리가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므로 무한하고 광대해서 어디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모든 게 걸리고 사람 사는 게 무상하고 덧없고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불교(佛敎)란 어떤 것인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이요, 그 생명이 태어나서 배우고 느끼고 알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그 자체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는 한 발짝도 공기주머니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두가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주머니를 버스라고 해 봅시다.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좌석 하나 붙들고 내 종교가 옳으니 네 종교가 옳으니 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머니가 어디로 조율해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한 주머니 안에서 복닥거리고 네 것 내 것을 가르고 온통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



그림 · 최주현

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이들이 아니요, 바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빠다귀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셨습니다. "사생자부이신 아버지 신데 어찌 빠다귀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에 의해서 일체가들이 아님을 일러 주신 건데...

또한 부처님께서 처음 나셨을 때부터 열반 하시가지까지를 모두 합쳐서 수록한 것을 이름해서 팔상성도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일대기를 팔상성도로 이름 붙인 것은 뜻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사무 사유(四無有)가 돌 아나게 일대사의 인연을 지으셨으니,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

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화하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되고 이렇게 거듭 거듭 수억겁을 거치면서 고등 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의 육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닙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형성됐으니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빠다귀에 절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돌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은 제각기 갈래갈래 모습이 다르니라." 돌이 아닌 까닭에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 의식들이 있죠.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목이 마르다면 물을 줘야 하고 배고프다면 밥을 줘야 합니다. 모든 심부름을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심

부름을 해 줘야만이 또 작용을 해 줘서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는 한 개체인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 집이듯이 우리 몸이 그 모든 생명들의 집합소라고나 할까요? 그 생명들의 집이죠. 그 생명들의 집에 한 개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제각기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주체인 것입니다.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실 수 있겠는지요. 우리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어서, 예전에 몸뚱이는 배로 비유했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은 바로 중생들로 비유했죠. 그 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장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했고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선장에 한마음이 돼서 가만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 하고 바깥으로만 찾고 응성거린다면 그 배는 뒤집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장의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이 귀결되면

조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 이유는 바로 그 육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조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하게 되는데,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아닌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복의 결과 일체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 모두 화해서 천차만별 용도의 소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해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고, 땅이 짙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칠성 부처로 나투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를 쓰는 사람 앞에는 지장으로 나투어 주시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나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니 약사보살이니 모두 응신으로서 나투시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자성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여여한 줄을 알기 때문에, 자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성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님의 도리를 알기 이전에 자기부터 안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 아나게 대비 대책이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물질계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되고 물질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또 컴퓨터를 통해 영상으로나 필로나 다 빼낸다고 해도 부처님의 한 말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왜냐? 6·25 때 보니까 말입니다. 부처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먹고 살 것만 짊어지고 가요. 그렇듯이 만약에 난리가 났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컴퓨터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자동적인 컴퓨터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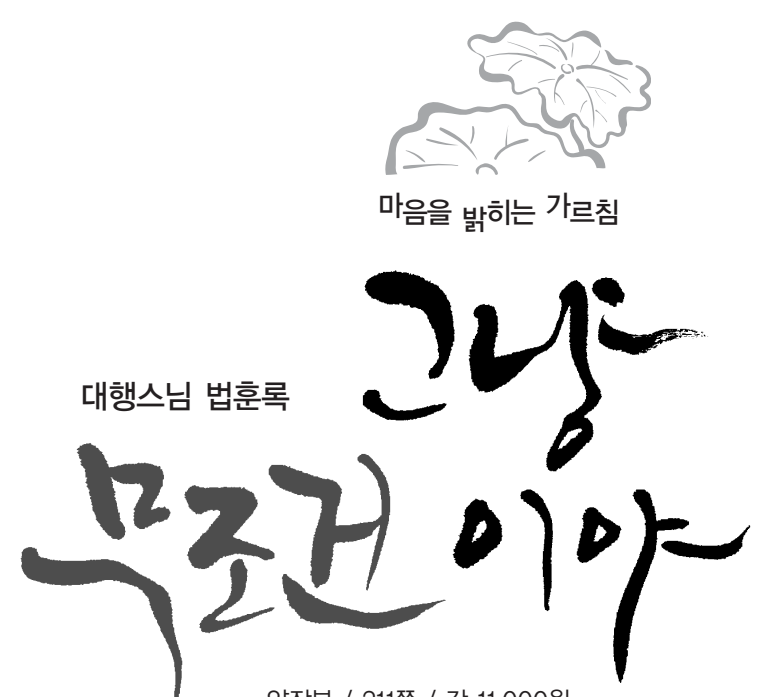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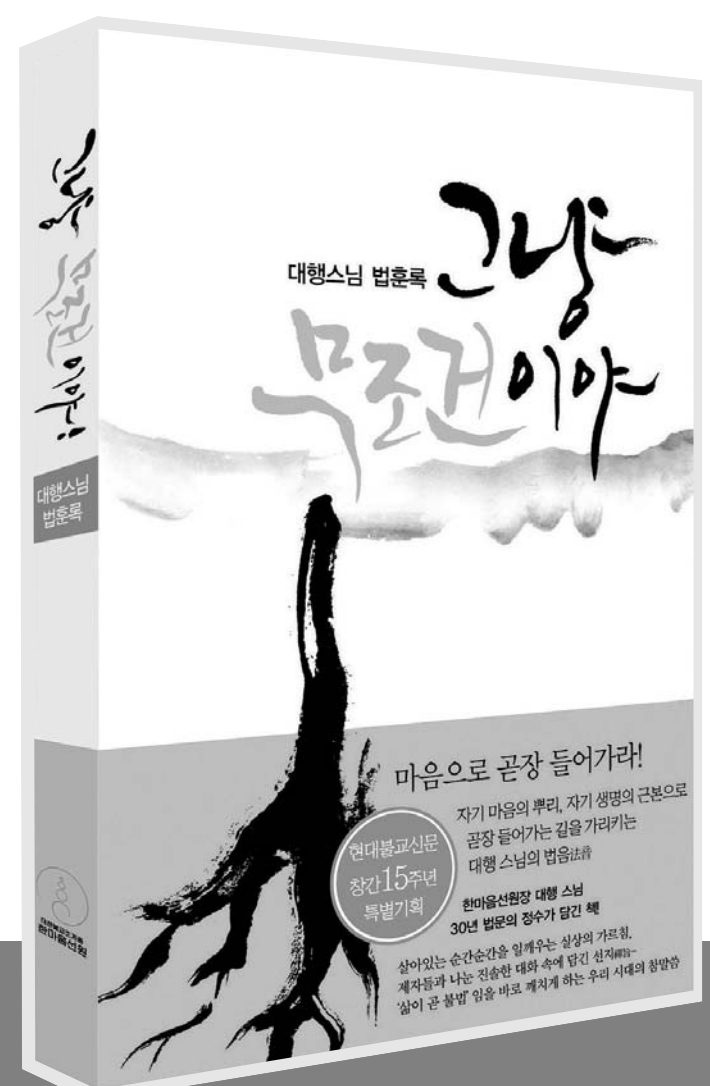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장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선장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